

3. 보궐 선거

-보선결과의 의의

- 통합 선거법 통과후 첫 선거로서, 공명 선거 분위기 정착에는 일단 성공.
- 민자당의 참패는 김영삼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

-보선 결과에 대한 각당의 예상 대응

- 정부 여당측에서는 보선 패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보다는 내년의 지방선거에 대비한 보다 폭넓은 당정 개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.
- 민주당내에서는 이기택 대표의 위상이 제고되고, 이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당헌 개정을 통한 당권 강화와 민주당 중심의 야권 통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.
- 신민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됨으로써 민주당과의 통합 보다는 당세확장을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신경을 쓸 것으로 전망됨.

-보선후 정국 전망

- 야당의 입지 강화로 UR 협정 비준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.
- 정부여당은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TK와의 화해를 시도할 것이나, 이는 김대통령의 개혁 이미지와 상충되므로 성공 여부는 미지수
- 만약 이 작업에 실패하면 민자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고전할 것임.

(김 욱)